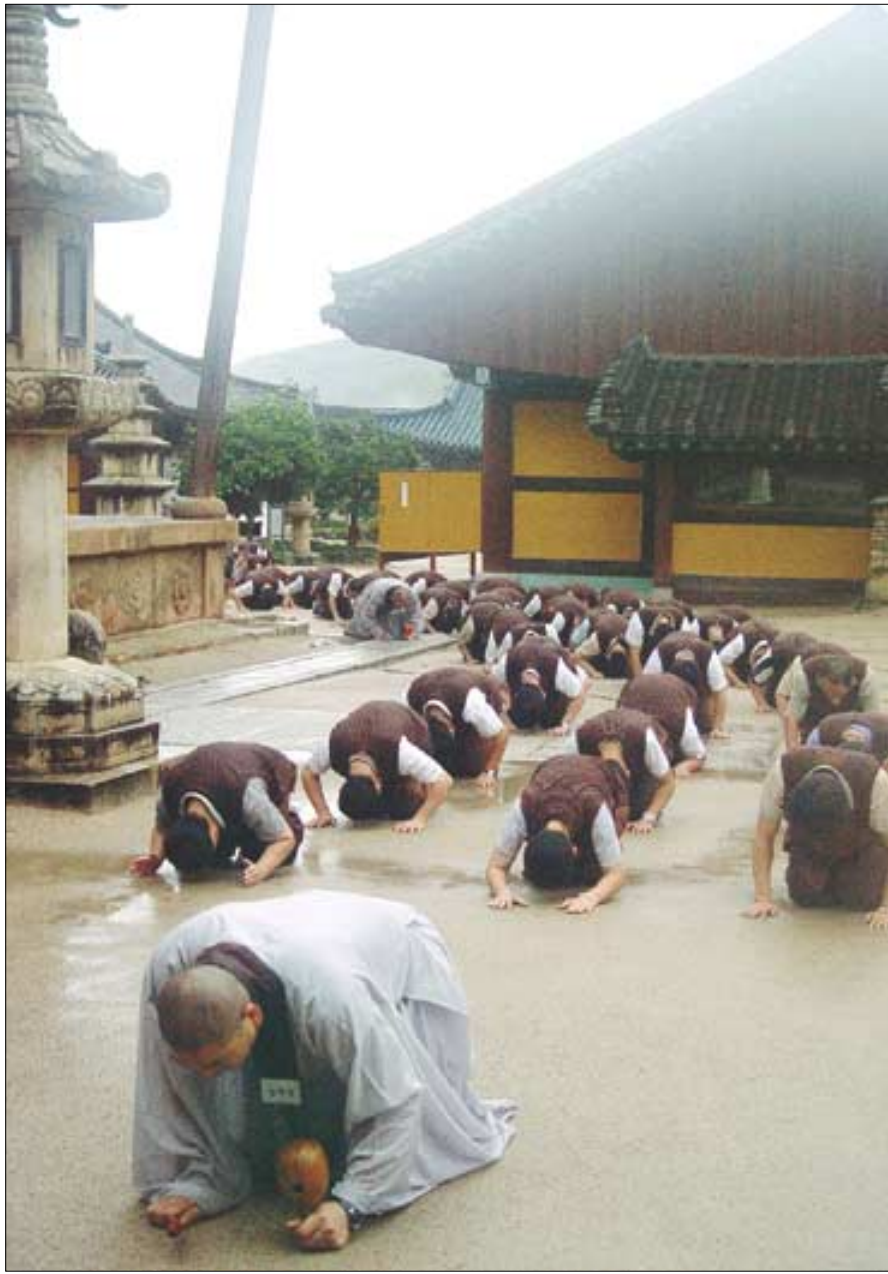


## 山寺서 경영 새 활력 얻는다



빛속의 삼보일배

산사 수련회를 통해 기업문화와 경영의 새활력을 찾는 기업이 늘고 있다. 사진은 11일 아전 통도사에서 비를 맞으며 삼보일배를 하고 있는 삼성SDI 직원들. 양산=천미희 기자

### 삼성SDI간부 520명 통도사에서 참선·삼보일배 SK건설·강원도청·외국인회사도 '산사수련'

지난 시대, 종교와 기업은 양극단에 존재했다. 그러나 오늘날 기업은 불교문화에서 '시대정신'과 '기업 가치'를 배운다. 창의력, 고객감동, 인내심, 상상력을 얻고 배우기 위해 기업들은 지금 사찰로 향하고 있다. 삼성SDI는 지난 8일부터 통도사에서 과장급 이상 간부 520명이 1박2일 일정으로 6차에 걸쳐 참가하는 수련회를 시작했다. 참선, 포행, 발우공양, 삼보일배, 특강, 박물관 관람 등의 프로그램이 눈코 뜰 새 없이 이어진다. "노사문제의 해법을 얻어가겠다"는 배기철 차장(교육부)과 "새로운 기업문화를 고민하고 있다"는 강병운 과장(경영지원팀)은 11일 새벽 삼보일배를 마친 뒤 이번 수련회에 가는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SK건설은 오는 24일과 8월6일 두 차례에 걸쳐 5박6일 일정으로 10여명의 임원들을 김제 귀신사에서 진행하는 동사선 수련회에 참가시킨다. 조직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아성철의 기회를 갖게 하기 위해서다. 이처럼 사찰 수련회는 단순히 '사찰 체험'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기업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불교 정신'이다. 여기에서 기업들은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려 한다. 금융자동화기기 전문업체인 노틸러스효성의 탐정급 직원 51명은 지난 6월20~21일 이틀간 강화 전등사 산사체험 프로그램에 참가했다. 리더십을 키우는데 마음을 낮추는 '참선'만큼 좋은 교육프로그램도 없다는 판단에서다. 부산은행은 하반기에 범여사에서 임직원 수련회를 가질 계획이다. 이미 작년에 두 차례, 그리고 지난 5월에도 이틀간의 일정으로 직원수련회를 가졌는데, 효과 만점이었다.

이밖에도 강원도청과 한국관광공사 직원들이 이달 25~26일 양양 낙산사 수련회에 참가하며, 외국인 회사 '투어넷코리아'가 지난 5일 경주 팔공사에서 수련회를 가졌다. 한명우·천미희 기자

### 북한산 관동노선 백지화 촉구

#### 공대위, 월내 불이행땀 10만 범불교도대회

조계종의 북한산 관동노선 백지화 촉구 수위가 한층 높아졌다. 불교, 개신교, 천주교 등 7대 종교 지도자들도 관동노선 백지화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조계종 공동대책위는 9일 "이달 말까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지 않을 시 '노후형 정부 불교계 약속이행 촉구 10만 범불교도 정진대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정진대회에 앞서 전국 일만여 불교계 사찰에 노무현대통령 불교계 공약이행과 북한산 관동노선 폐기를 촉구하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유인물을 제작 배포코 했다. 또 전국교구본사 주지 및 말사 주지스님들과 신형 및 환경단체가 주도하는 49일 릴레이 단식 정진도 개최할 방침이다. 한명우·남동우 기자

### 현대불교신문은 수행·포교지다 읽으신 후 가까운 이웃에게

현대불교신문은 수행·포교지입니다. 다 보신 뒤에는 버리지 마시고 가까운 이웃에게 주십시오. 신문에 담긴 단 한줄의 말씀이 여러분의 이웃을 제도할 수도 있습니다.

◎ 구독 신청 안내  
 수도권: (02)737-0090 부산: (051)632-0064 대구: (053)768-8008 광주: (062)375-9986 전북: (063)255-2274 대전: (042)489-9300 충북: (043)258-3282 강원: (033)643-5599 동해: (033)521-6293 영주: (054)634-3429 경남: (055)353-1196 제주: (043)644-4366 경남 서부: (055)547-3469



매일 죽는 사람들. 시시각각 어두운 그림자를 직감하는 사람들. 이들을 사형수라 부른다. 숨 쉬는 순간조차 찰나 찰나의 죽음을 경험하고 불안 속에서 주어진 시간을 보내는 사형수. 그 초조함을 스스로 거두고 영겁의 편안함을 선택한 사형수가 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사형수 이 모 불자(35세). 더 큰 죽음을 사

후 장기·시신기증에서 찾았다. 이 모 불자는 최근 '잘못을 뉘우치고 생명을 살리는 장기·시신기증을 발원한다'는 청원서를 제출, 구

자책의 시간으로 지친 마음을 달래던 이 모 불자가 불교를 통해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게 됐던 것이다. 이 모 불자는 이때 '육보시가 불

않았다. 그러다 지난 2000년 5월 사형 확정소고를 받게 되면서 이번 아시아 가족의 동의와 구치소의 수용으로 기증의 길이 열리게 됐다.

《출요경》에 이런 말이 있다. '분래 자기가 지은 것은 자기가 받나니, 악을 지었을지라도 스스로 고치면 강철로 구슬을 뚫는 것 같다'라는 부처님 말씀. 삼인자라도 진심으로 참회하면 죄를 사하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가르침은 사형수 이 모 불자가 '더 크게 사는 법'을 찾을 수 있게 했던 것이다. 김철우(해제1부 기자)

### 어느 사형수의 발원

치소가 이를 받아들여 형 집행 이후 시신과 각막을 기증토록 했다. 이 모 불자가 이렇게 사후 장기·시신기증을 결심하게 된 것은 5년 전. 구치소 수감 이후 불교종교

가에서 참으로 큰 보시"라는 불교종교위원을 법문을 듣고, 신장 및 골수 등 장기기증을 서원하게 됐다. 하지만 이마저도 순탄하지는 않았다. 사형 형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줄곧 청원이 받아들여지지

### 연꽃축제 기행 "함께 해요"

#### 기행 코스

김제 청운사 연밭 6천여 평을 가득 채운 백련 감상 및 연꽃 차 시음 및 구매

#### 아산 인취사

백련 보급의 원조인 인취사 연밭과 지혜민 스님의 '연꽃 법문'

#### 삼척리조트 제1회 세계연꽃 축제

350여 종 연꽃이 한자리에 모인 최대의 연꽃 축제 관람

#### 기행 일시 및 인원

7월 19일~9월 30일 매주 토요일 오전 6시30분~오후 8시. 선착순 200명

#### 참가비

4만 5천원(아침, 점심식대, 입장료·여행자 보험금 포함)  
 \*10명 이상 단체참가시 10% 할인

#### 참가방법

전화신청 (732-1520)→참가비 입금 (농협 053-12-113210 예금주, 하동구)→입금 확인(본사에서 전화 드립니다)→좌석배정-당일 오전 6시25분까지 조계사 앞 집결

### 가자! 제6회 부다피아 어린이캠프

#### 적멸보궁 참배하며 신심도 키우고

7월 22~24일 사자산 법암사·백덕산 관음사



◆일 정: 2003년 7월 22일(화)~7월 24일(목) 2박3일  
 ◆장 소: 강원도 영월 사자산 법암사, 백덕산 관음사 일대  
 ◆대 상: 초등학교 1~6학년(선착순 200명)

◆참가비: 7만원  
 ◆준비물: 점심 도시락(당일), 수영복, 수영모자, 필기도구, 세면도구, 모포  
 ◆문의전화: 02-738-7860  
 ◆은행계좌: 농협 053-02-171711 (예금주: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출 발: 7월 22일 오전 10시 종로 조계사 앞  
 \*도 착: 7월 24일 오후 6시 종로 조계사 앞

●주 최: 현대불교신문사  
 ●주 관: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일 찬: (재)보덕학회, 현대불교신문사  
 ●후 원: 조계종 포교원, 진각종 통리원, 한마음선원

### 조계종 문장 '삼보륜' 공개 의견수렴 거쳐 10월 확정



조계종이 종단을 상징하는 문장(紋章·상징적인 그림으로 나타낸 표시)을 개발, 공개했다. 조계종 총무원 총무국장 주경수님은 9일 "안상수 교수에게 의뢰해 5년 작업 끝에 '삼보륜(三寶輪)'을 종단 문장으로 개발했다"고 밝혔다. '삼보륜'은 삼보를 뜻하는 점 세 개

#### '선과 21세기'

윤원철 교수 '신의 세계' 20면

(·)를 선사상과 윤회, 그리고 법륜을 뜻하는 원(○)안에 넣은 형태를 띠고 있다. 색상은 금색과 적색 계열로 도입됐다. 총무원은 점 세 개의 크기와 원의 굵기, 색상, 문장조와 조화되는 '대한불교 조계종' 글자체 등은 의견수렴을 통해 10월경 결정할 방침이다. 한명우 기자

**정주 입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박영만**  
 (법명: 일경)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712-5 오성빌딩 501호  
 TEL 02)3476-5704  
 FAX 02)3476-5710

www.dhsystem.co.kr

## 불자들에게 대한시스템이 특별한 만족을 드립니다

### 대중방이 정리기 되지 않으신다구요? 저의 대한시스템 불박이장이 깔끔하게 정리하여 드리겠습니다.

대한시스템 불박이장은 고객의 다양하고도 넓은 욕구를 충족시켜 드리기 위해 20여년간 쌓아온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고품격의 디자인과 확실한 품질, 또한 여러종류의 차별화된 독특하고 편리한 기능으로 수납의 효율성은 물론 고급스럽고 개성있는 공간을 고객의 기호에 맞게 아름답고 편리하게 꾸며 드립니다.

시찰 납품 대표 모델 ●법흥사 ●삼운사 등

맞춤 불박이장 전문 메이커

(주)대한시스템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733-7 (남동공단 167블럭 8동 701호)  
 TEL: (032)822-0022-30 FAX: (032)822-0033  
 소비자부호센터: (032)822-0030